

#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vs “현장서 공감, 해결책 찾을 것”

〈국민의힘 오신환〉

〈민주당 고민정〉

## 22대 총선 격전지

### 광진을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민주 고민정 44%, 국힘 오신환 37%  
오신환 “제자리 걸음 벗어나야”  
고민정 “정치, 현장·공감이 답”



서울 광진구는 4·10 총선에서 '한강벨트'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사진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사진 왼쪽)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모습. /각 후보 페이스북 캡처



서울 광진구는 4·10 총선에서 '한강벨트'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지역구가 신설된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7차례의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특히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진을에서 20년에 걸쳐 5선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여성 최초 지역구 5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의 표심을 살펴보면 총선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진구에서 56.69%를 얻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8.82%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1.63%포인트 차로 이겼다.

대선이 끝난 후 3개월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8.31%를 얻어 큰 차이로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눌렀다. 광진구청장의 경우엔 김경호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1.21%를 얻어 1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광진구청장이 탄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진구의 표밭이 보수화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2년 지선은 대통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시기였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현재, 광진구의 표심은 선불리 가늠

하기 어려워졌다.

### ◆민주 고민정 44%vs국힘 오신환 37%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진을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초접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대선·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곳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8~9일 광진을 거주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고

민정 민주당 의원은 44%,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3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포인트다.

###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오신환 vs '내일이 기대되는 광진' 고민정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광진을에 도전자로 나선 이는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다.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2.55%포인트 차로 패한 바 있다.

오신환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 이후 22대 총선에서 기존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구가 아닌 광진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선거 약 1년 전부터 지역구 다지기에 매진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달 14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광진을은 인근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2호선 지상철 지하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인지 오 후보 역시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성동·중랑·강동이 전부 변하는 동안 광진은 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하는냐"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오신

환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광진을 지역의 현역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5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승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중랑감 있는 상대 후보와 맞붙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꼽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고 의원은 당 지도부를 역임하는 등,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보다 무게감이 더해졌다. 최근 발목을 잡질리며 휠체어·목발 등의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두 발로 골목을 돌며 지역민을 한 명씩 만나고 있다고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고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인 자양사거리 앞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진'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현장과 공감이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의 해결책"이라며 "가슴으로 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진 구석구석에서 주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사심’ 챙긴 회장 정치권행... 소상공인聯, 정치판으로 전략

## 롯데 회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일부 단체 임기 중 ‘정치행위’ 비판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치판으로 전략했다. 소공연 정관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색케 하며 정치화되는 등 조짐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임기를 5개월 가량 남겨두고 지난 6일 돌연 사퇴했다.

오 회장은 사퇴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같은 날 오전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 사무실에서 대한속박업종연합회, 한국펄산업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과

함께 인연을 모아놓고 버젓이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갑작스럽다. (사퇴 및 비례대표 신청은) 회장이 혼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회장의 사퇴로 소공연은 오는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빈 회장 자리는 한국주유소협회장

을 하고 있는 유기준 현 소공연 수석부회장이 당분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의 정치권 행보는 2021년 8월 제4대 소공연 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그의 소공연 회장 도전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게 소상공인업계 내부의 관측이었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인 오 전 회장은 89년 당시 설립한 뷰티전문학원 수빈아

카데미를 통해 미용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도 발을 들였다.

그러나 전임 3대 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소공연이 한창 집안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경선을 통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회장직까지 올랐다.

오 전 회장이 한창 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22년 초반 한 소상공인 단체는 당시 오 회장이 “특정 정당을 옹호하며 정치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 숲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 길

영양읍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 빛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 맛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 연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 심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죽백수림, 외새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문화박물관, 빈대밭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풍력발전단지, 흥양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